

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鬱陵島
～ 鬱陵島二泊三日の記録 ～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울릉도
～ 울릉도 2박 3일의 기록 ～



天野松男
아마노 마쯔오

まえがき 머리말

6月1日から7日までの7日間の鬱陵島訪問計画を立てた。当初鬱陵島には4泊の予定であったが、鬱陵島の宿の予約をしていなかったため宿が取れず結果的には2泊3日の鬱陵島訪問となった。

6월 1일부터 7일까지의 7일간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세웠다. 당초 울릉도에는 4박의 예정이었지만, 울릉도에 숙소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를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2박 3일의 울릉도 방문이 되었다.

予定を繰り上げて釜山に戻り、久しぶりに知人に会ってきたが、これは別途記述することにする。

예정을 앞당기고 부산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고 왔지만, 이것은 별도로 기술하기로 한다.

2013年に「私の韓国、私の日本」という文集を日韓両国語併記で自費出版した。これは日本で生まれ終戦後韓国へ帰った人、あるいは韓国で生まれていても日本と関わりのあった方々の日本への思い出を綴ったものである。42名の方が寄稿した。鬱陵島でも、日本による韓国併合前から日本人と関わりがあったと聞いている。日本人との関わりは、日本の帝国主義的支配のために辛いことも多々あったと思う。それで、鬱陵島民で戦前日本人との関わりがあった人を探し、その思い出を文集として残そうと考えた。その第一歩が今回の訪問であった。

2013년에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이라고 하는 문집을 한일 양국어 병기로 자비출판 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태어나 종전 후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일본과 관계가 있던 분들의 일본에 대한

추억을 쓴 것이다. 42 분이 기고했다. 울릉도에서도,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전부터 일본인과 관계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일본인과의 관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 때문에 괴로운 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울릉도민으로 전쟁 전 일본인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찾아, 그 추억을 문집으로 남기려고 생각했다. 그 제일보가 이번 방문이었다.

詳しくは巻末の「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思い出をお寄せください」を参照していただきたい。この文書を作るために、日本語を Google 翻訳と weblio 韓国語翻訳を使い、交互に翻訳文を比較して韓国語文書を作った。しかし、機械翻訳ではとんでもない翻訳文が出てくる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最終的には釜山で日本語教室を開いている朴清九さんにチェックしていただいた。この文書を 100 枚印刷した。また、自分の依頼したい(言いたい)ことを文書にして機械翻訳し、別途印刷して持参した。これらの文書を鬱陵島でばらまいてくるつもりでいた。

자세한 것은 권말의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추억담을 보내 주세요」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어를 Google 번역과 weblio 한국어 번역을 사용해, 교대로 번역문을 비교해 한국어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계 번역에서는 터무니 없는 번역문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부산에서 일본어 교실을 열고 있는 박청구 선생님에게 체크를 부탁했다. 이 문서를 100 매 인쇄했다. 또, 내 자신의 의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문서로 해서 기계 번역하고, 별도 인쇄해서 지참했다. 이러한 문서를 울릉도에서 뿌리고 올 생각으로 있었다.

また、釜山日語奉仕会の会長の金仁熙さんには、鬱陵島に知り合いがおられれば紹介してほしいと依頼したところ、金さんはわざわざ鬱陵郡の郡役所

にまで電話し情報収集に骨を折っていただいた。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또, 부산 일어 봉사회의 회장 김인희선생님에게는, 울릉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뢰했는데, 김선생님을 일부러 울릉군의 군청에까지 전화해 정보 수집에 애써 주셨다. 폐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前段で上述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今回の鬱陵島訪問が実現できた。報告を兼ねて、以下、はじめての鬱陵島訪問の顛末を記録しておきたい。

전단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일이 있어서, 이번 울릉도 방문이 실현될 수 있었다. 보고를 겸해서, 아래와 같이, 첫 울릉도 방문의 전말을 기록해 두고 싶다.

なお、本文中の韓国語は機械翻訳による。

또한, 본문중의 한국어는 기계 번역에 의한다.

2016年년 7月월 5日일

天野松男 아마노마쯔오

鬱陵島第一日目 6月2日(木) 울릉도 제일 일째 6월 2일(목)

それは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浦項から鬱陵島へ。

그것은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当初は8時過ぎにフェリーターミナルへ行くつもりでいたが、年を取ると早く目が覚めて、7時には準備万端整ったのでホテルを出ることにした。フロントでチェックアウトを告げ、タクシーを呼んでほしいと依頼すると電話してくれた。すぐにタクシーは来た。フェリーターミナルまで W7000。

7時20分頃到着。

당초는 8시 지나 페리 터미널에 갈 생각으로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빨리 깨어나서, 7시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 모텔을 나오기로 했다. 프론트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전화해 주었다. 곧바로 택시는 왔다. 페리 터미널까지 W7000. 7시 20분 무렵 도착.

ターミナルにはまだ客はあまり来ていなかった。出港は9時50分。まだだいぶ時間がある。良い天気だ。きれいな写真を撮ることができそうだ。9時に発券受付が始まった。2014年11月に下見に来たときの女性が受付にいたので一言あいさつしてみようと思いその列に並んだ。しかし、運悪く隣の列が早く進みあと一人のところまで隣の列の受付に呼ばれた。仕方がないのでそちらで乗船券を購入した。定価は W64000。

터미널에게는 아직 손님은 별로 와있지 않았다. 출항은 9시 50분. 아직 제법 시간이 있다. 좋은 날씨다.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9시에 매표가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에 예비 조사하러 왔을 때의 여성이 매표소에 있었으므로 한마디 인사해 보려고 그 줄에 섰다. 그러나, 운 나쁘게 옆줄이 빨리 진행되어 나머지 한 명을 앞에 두고 옆줄에

불리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 쪽 줄에서 승선권을 구입했다. 정가는 W64000.

中国旅行で老人割引料金を利用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ここでは予め「65 세이상」というメモを作り受付に提示した。すると了解してくれて W51900 に料金が下がった。日本円でおおよそ 1210 円の割引である。有り難い。日本でも外国人旅行者にこのような割引をしているのだろうか。

중국 여행에서 노인 할인요금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리 「65 세이상」라고 하는 메모를 만들어 접수에 제시했다. 그러자 이해해 주어 W51900 으로 요금이 내렸다. 일본엔으로 대강 1210 엔의 할인이다. 고맙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러한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일까.

乗船券購入の際にパスポートの提示を求められた。やっぱり日本人(外国人)は警戒されるのかと思っていたが、地元の韓国人も何やら身分証明書のようなカードの提示が求められていたので、外国人を特別に警戒するとかそのようなことではないようだ。

승선권구입 시에 패스포트 제시를 요구 받았다. 역시 일본인(외국인)은 경계 받는가 생각했지만, 현지의 한국인도 무엇인가 신분 증명서와 같은 카드의 제시를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외국인을 특별히 경계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さて、改札を待っていると一人の男性が「日本の方ですか」と話しかけてきた。「観光ですか」聞く。「そうです」と応えると「観光だけですか」とちょっと妙な質問をしてきた。さらに「独島には行かないですよね」だったか、そのようなことを聞いてきた。独島へ行くかどうか迷っていたのだが、その時は行かないことに決めていたので「行きません」と応えた。で、名刺を求

めると、「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 이승진」と書いてあった。なんとその人はかの独島博物館の李承鎮館長だった。私の名刺の肩書は「フリーフォトグラファー」だ。

그런데, 개찰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 남성이 「일본 분입니까」 라고 말을 건네 왔다. 「관광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관광 뿐입니까」 라고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해 왔다. 더구나 「독도에는 가지않으시네요」 였는지, 그러한 것을 물어 왔다. 독도에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 때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명함을 청구하니,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 이승진」 이라고 써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 독도 박물관의 이승진관장 이었다. 내 명함의 직함은 「프리 포토 그래퍼」 이다.

これはいい出会いだと思い、私は「相談がある」と寄稿を呼びかける例のチラシを取り出して彼に渡し、協力を依頼した。そのつもりではなかったが、あっさりと渡島目的を明かしてしまった。彼は一瞥したが何も言わなかった。どこへ泊まるかとも聞かれた。宿泊予約をしていなかったもので予約していないとそのまま応え、そして、どこか紹介して下さいと厚かましくも頼んだ。それにも特に返事はなかった。席はどこかとも聞いてきた。乗船券を見せると、ああ、2階ですね、私は1階です、といった。乗船券には「2층」と刻印されていたが、その時まで自分の席が1階か2階か知らなかった。

이것은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담이 있다」 라고 기고를 부당하는 예의 광고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어, 협력을 의뢰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시원스럽게 섬에 건너가는 목적을 밝혀 버렸다. 그는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에 목을까도 물었다. 숙박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하고 있지 않다고 그대로 대답하고, 그리고, 어딘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뻔뻔스럽게도 부탁했다. 그 말에도

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鬱陵島 ～鬱陵島二泊三日の記録～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울릉도 ～울릉도 2박 3일의 기록～



フェリーターミナル正面 페리 터미널 정면, 待合室 대합실



乗船 9 時 30 分 승선 9 시 30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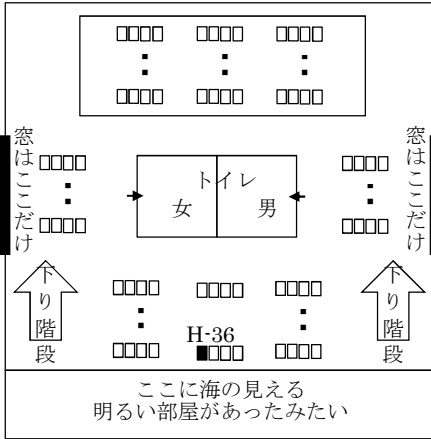
특별한 대답은 없었다. 좌석은 어딘가 라고도 물어 왔다. 승선권을 보이자, 아, 2 층이군요, 나는 1 층입니다, 라고 했다. 승선권에는 「2 층」이라고 찍혀 있었지만, 그 때까지 자신의 좌석이 1 층인가 2 층인가 몰랐다.

身分証明のチェックは改札の時も行われ、私はパスポート、韓国人は身分証明カードを再び示して改札を通過し乗船することができた。

신분 증명의 체크는 개찰 때도 행해져 나는 페스포트, 한국인은 신분 증명 카드를 다시 보여주며 개찰을 통과해 승선할 수 있었다.

フェリーは全席座席指定のようで、私の座席は「일반석 (2 층) / H-36」であった。この「일반석」は Google 翻訳では「エコノミークラス」と出た。2 階の一般席はおおよそ下図のようであった。

페리는 모든 좌석이 지정좌석 같았고, 나의 좌석은 「일반석 (2층) / H-36」 이었다. 이 「일반석」 은 Google 번역에서는 「이코노미 클래스」 라고 나왔다. 2층의 일반석은 대체로 아래그림과 같았다.



乗船後、船から港の写真を撮ろうと思ひ近くの船員に「デッキ?」と尋ねると「ノーデッキ、オールインサイド」と答えが返ってきた。えっ、外に出られないのかと思った。高速船だから安全管理上そうせざるを得ないのかも知れない。しかし、閉鎖的な空間で窓がほとんどなく、これ

で転覆でもしたら助からないと恐怖を覚えた。これが「一般席」なのだ。JR九州のビートルもオールインサイドだが、「一般席」でも窓があり外が見えるだけでもいい。

승선 후, 배로부터 항구의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선원에게 「테크?」 라고 묻자 「노우 테크, 올 인사이드」 라고 대답이 되돌아 왔다. 어,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고속선 이니까 안전 관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다. 그러나, 폐쇄적인 공간에서 창이 거의 없고, 이것으로 전복이라도 된다면 살아날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다. 이것이 「일반석」 이다. JR 큐슈의 비틀 도 올 인사이드 이지만, 「일반석」 이라도 창이 있어 밖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좋다.

さて、独島博物館の館長が何で私に近づいてきたのか、正直不可解な思いだった。旅の目的、宿泊場所を聞いてくる、やっぱり監視されていると思った。まあ、しかし、出港した後、館長がわざわざ私の座席にやってきて「マツオさん、ホテルとれましたよ、2日だけですがいいですか」と言ってきた。船から鬱陵島のホテルに電話を入れてくれたのだ。自分は宿が取れなければとんぼ返りするつもりでいたから、2日間でもとれば万々歳だ。有り難うございますとお礼した。下船したら待っていますから一緒に行きましょうと笑顔で言ってくれた。

그런데, 독도 박물관의 관장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다가왔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행의 목적, 숙박 장소를 물어 온다, 역시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출항한 후, 관장이 일부러 나의 좌석에 와서 「마쓰오씨, 호텔 잡혔어요, 2일뿐입니다만 좋습니까」라고 말해 왔다. 배에서 울릉도의 호텔에 전화를 걸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숙소가 잡히지 않으면 바로 되돈아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2일간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만만세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하선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잡시다 라고 웃는 얼굴로 말해 주었다.

船を下りると館長はすぐにホテルに電話を入れ、ちょっと待つとホテルから我々をジープのような車で迎えに来た。館長は私だけを乗せて行こうとしたが、迎えに来た人があんたも乗りなさいという身振りをし、館長も同乗した。後でわかったことだが、車で行くほどの距離ではなかった。初めての鬱陵島だ、距離感が全くなかった。島は人でごった返していた。

배를 내리자 관장은 곧바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 조금 기다리자 호텔로부터 우리를 지프 같은 차로 마중 나왔다. 관장은 나만을 태우고 가라고 했지만, 마중 나온 사람이 당신도 타세요 라고 하는 몸짓을 해, 관장도 동승 했다. 뒤에 안 일이지만, 차로 갈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다.

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鬱陵島 ～鬱陵島二泊三日の記録～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울릉도 ～ 울릉도 2박 3일의 기록～



多数の客が下船

다수의 손님이 하선

李承鎮獨島博物館館長
이승진 독도 박물관 관장



下船客と迎いの車でごった返す道洞港

하선객과 마중 나온 차로 붐비는
도동항



처음 우는 울릉도지만, 거리감이 전혀 없었다. 섬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着いたところは「e-편한 호텔」というホテルだった。オンドル部屋で宿賃は一泊 W60000、かなりきつい値段だったが、この際四の五の言っておれなかった。新しいホテルだった。館長とはここでお別れだが、今度いつ会えるかと聞くと 11日(土) 11時だったらいいよ、とのことだったのでその時間に会うことにした。

도착한 곳은 「e-편한 호텔」 이라는 호텔이었다. 온돌 방으로 숙박료는 일박 W60000, 꽤 벽찬 가격이었지만,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었다. 새 호텔이었다. 관장과는 여기서 작별이지만,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물으니 11 일(토) 11 시라면 좋아요, 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ここで敢えて記しておこうと思う。
여기서 굳이 써두자 고 생각한다.

2014年11月に渡島を試みたことがあった。その時、浦項のフェリーターミナルで応対してくれた職員にホテルの紹介を依頼した。そして、紹介されたのが「e-편한 모텔」であった。「호텔」と「모텔」が異なるが、多分同じところだろうと思う。この時はまだホテルだったのだ。しかし、この時は激しい下痢に見舞われて渡島しなかった。渡島の目的は何か、独島へは行くか、ホテルはどこか、を聞いてきた。私（日本人）はやっぱり「監視」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そして、「e-편한 호텔」は私のような人間が来たときにまずは紹介する「指定」ホテルではないか。具体的な証拠は何もないが。

2014년 11월에 울릉도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포항의 페리터미널에서 응대해 준 직원에게 모텔의 소개를 의뢰했다. 그리고, 소개받은 것이 「e-편한 모텔」이었다. 「호텔」과 「모텔」이 다르지만, 아마 같은 곳 일거라고 생각한다. 이 때는 아직 모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심한 설사를 만나 울릉도에 가지 못했다. 섬에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독도에는 가는지, 호텔은 어딘가, 를 물어 왔다. 나(일본인)는 역시 「감시」 당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e-편한 호텔」는 나와 같은 인간이 왔을 때에. 우선 소개하는 「지정」 호텔이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만.

しかし、喧嘩するために鬱陵島に行ったわけではないし、渡島目的も実は観光ではなく、李館長にチラシを見せてオープンにした。監視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逆に安全が確保されているとも言えないか。冒険的な旅行であれ

ば安全は大切なことだ。李館長からはいっぱい写真を撮ってください、と言われた。諜報活動で行く人はこうはならないかも知れない。信じる者は救われる。負の連鎖を増幅させても意味はない。

그러나, 싸움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간 것은 아니고, 섬에 가는 목적도 실은 관광이 아니라, 이 관장에게 광고지를 보이며 분명히 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것이 아닌가. 모험적인 여행이라면 안전 확보는 중요한 일이다. 이 관장은 사진을 많이 찍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첩보활동으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는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믿는자는 구원받는다. 부의 연쇄를 증폭시켜도 의미는 없다.

第一日目の当初予定は独島博物館、日本式家屋を訪ね、道洞の町をぶらぶらすることであった。独島博物館は工事中で見学不可との情報を既にフェリーで李館長から得ていたので、まずは日本式家屋を訪ねることにした。受付嬢に「日本語 OK?」と聞くとあまり通じなかった。それでも「どうぞ」と優しく迎え入れてくれた。先客は二人だけで混雑はしていなかった。この日本式家屋の細かなことは聞かなかったが大工さんの家だったらしい。二階屋だ。そんなに大きくない建物なので 10 分もあればさっと見て回れる。説明はハングルだから理解できない。今は鬱陵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として使われている。

첫날의 당초 예정은 독도 박물관, 일본식 가옥을 방문하고 도동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것이었다. 독도 박물관은 공사중으로 견학 불가라는 정보를 이미 배에서 이 관장으로부터 얻고 있었으므로, 우선은 일본식 가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접수 아가씨에게 「일본어 OK?」라고 물으니 별로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무쪼록」이라고 상냥하게 맞아들어 주었다. 먼저 온 손님은 선객은 두 명만으로 혼잡하지는 않았다. 이 일본식 가옥의 상세한 것은 묻지 않았지만 목수의 집이었던 것 같다.

2층집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어서 10분 정도면 휙 돌아볼 수 있다. 설명은 한글이니까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역사 문화 체험 센터로서 사용되고 있다.

このセンターのマネージャーと名刺交換をした。許順姫허순희さん。明るく朗らかな人だ。すぐによびかけを出して読んでもらったが、特に感想はなく、セイブ、セイブとよびかけを押し返した。そして、韓国 TBC が 2006 年に作成した「독도 바다사자 (獨島アシカ)」という番組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あると思うので見なさい、と言った。この番組は私の横で放映されていたが、韓国語だから内容はよく分からなかった。このセンターでずっと放映されていた。

이 센터의 매니저와 명함 교환을 했다. 허순희선생님. 밝고 명랑한 사람이다. 곧바로 협조문을 내고, 읽어 주었지만. 특별한 감상없이, 세이브, 세이브라고 하며 협조문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한국 TBC 가 2006 년에 작성한 「독도 바다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넷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되니 보세요, 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 바로 옆에서 방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어라서 내용은 잘 몰랐다. 이 센터에서 쪽 방영되고 있었다.

帰国後調べたことだが、韓国 TBC のキム・ウンギョン記者の「TBC の HD ドキュメンタリー『獨島アシカ』が『2007 韓国民放大賞』に選ばれた」という記事 (2007-04-18) によると次のように報告している。

귀국후 조사한 것이지만, 한국 TBC 의 김은경 기자의 「TBC 의 HD 다큐 '독도 바다사자'가 '2007 한국민영방송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기사 (2007-04-18)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70418.010280745300001>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HD 영상으로 담아내고, 바다사자의 생존 및 복원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작품이다. 한때 세계 최대의 바다사자 서식지에서 지금은 멸종 위기에 다다른 이유를 추적하고, 결국 독도가 우리땅임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천명시켰다.

「独島アシカ」は、独島の美しい自然環境をHD映像に込めて、アシカの生存および復元の可能性を多角的に検討した作品である。かつて世界最大のアシカの生息地で、今では絶滅の危機にある多々の理由を追跡して、最終的には独島が私たちの土地であることをもう一度対外的に明らかにした。

日本語訳が韓国語のニュアンスを正しく訳出しているとすれば、率直に思う。アシカの絶滅危機問題と領土問題は全く別の問題ではないか。この二つの問題を同じ土俵で論じることに論理的な無理がある。番組はどのような論理構成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

일본어 번역이 한국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생각한다. 바다 사자의 멸종 위기 문제와 영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 두 문제를 같은 틀에서 논하기는 논리적인 무리가 있다. 프로그램은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また、許さんは独島関係の本を一冊くれた。その内容はハングルで書かれているので、よく分からないが、独島問題を論じることは私の目的ではないのでこれ以上言及しない。

또한 허 선생님은 독도 관련 서적을 한 권 주었다. 그 내용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독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写真はアコーディオンを弾いて私を歓迎する許さん。

사진은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나를 환영하는 허 선생님.

受付嬢にもよびかけを読んでもらった。期待する反応はなかった。逆に、独島をどう思うかと聞かれた。独島問題を議論してきたのではないので、そんなことは議論したくない、ここを読んでくれ、とばかりによびかけの「ひとりの民間人・・・」の件を示した。それでも受付嬢は納得していない風だった。私は独島問題の白黒をつけるために鬱陵島まで来たのではない。私の渡島目的は文集作成の協力者を得ることだ。そうは言っても、初対面の人に何かを頼むこと自体、突飛な行動だろうと思う。しかし、その突飛な行動を、ここでは熱意と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

접수 아가씨에게도 협조문을 읽어 주었다. 기대하는 반응은 없었다. 거꾸로,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독도 문제를 논의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논의하고 싶지 않다, 여기만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협조문의 「한사람의 민간인・・・」 이라고 알렸다. 그런데도 접수 아가씨는 납득하고 있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독도 문제의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울릉도까지 온 것은 아니다. 나의 울릉도행목적은 문집 작성의 협력자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첫 대면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엉뚱한 행동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엉뚱한 행동을, 여기에서는 열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幸い、許さんはケイコさんという日本人女性に連絡を取ってくれた。なんと鬱陵島に日本人が住んでいるというのだ。結局、私がいる間には連絡が取れず、明日 13 時にきなさ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

다행히, 허선생님은 케이코 씨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골랍게도 울릉도에 일본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연락을 되지 않아, 내일 13 시에 오세요, 라는 것이 되었다.



日本式家屋：玄関を入ると右の写真のような受付カウンターがある。許さん撮影。

일본식 가옥：현관을 들어가면 오른쪽의 사진과 같은 접수 카운터가 있다. 허선생님 촬영.



日本式家屋 2階 일본식 가옥 2층



右：鬱陵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マネージャー許順姫さん

우：울릉 역사 문화 체험 센터

매니저 허순희 선생님

左：受付嬢（この文書では、最初に私を受け付けてくれた人なので受付嬢と記した。後で知ったことだが許さんの娘さんだった。）

좌：접수 아가씨 (이 문서에서는, 최초로 나를 받아들여 준 사람이므로 접수 아가씨라고 적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허 선생님의 따님이었다.)



17時少し前にセンターを辞去し、さて今からどうしたものかと思いつつ町をうろついていると独島博物館入り口という看板に巡りあった。そこから独島博物館まで500mとあった。ならば歩いて行けると思い坂道を



를登っていった。小さな島で平地はほとんどなく道洞の町も斜面にある。その上の方に独島博物館がある。船着き場からすたすと歩くと10分くらいで行ける距離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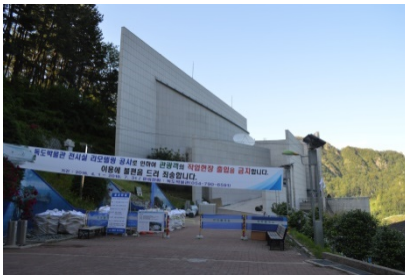
17시 조금 전에 센터를 나와서,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마을을 배회하고 있자니 독도 박물관 입구라고 하는 간판을 만나게 되었다. 거기로부터 독도 박물관까지 500 m였다.

그렇다면 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탈길을 올라 갔다. 작은 섬이어서 평지는 거의 없고 도동 마을도 경사면에 있다. 그 외쪽 편에 독도 박물관이 있다. 선착장으로부터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다.



看板の大きな文字のハングルは「道洞薬水公園入口」と書いてある。博物館までの途中に寺（대한불교 천태종 해도사大韓仏教天台宗海島寺）があり、この少し上に博物館があった。

간판의 큰 글씨의 한글은 「도동 약수 공원 입구」라고 써 있다. 박물관까지의 도중에 절 (대한불교 천태종 해도사) 이 있고, 이 조금 위에 박물관이 있었다.



横断幕は「独島博物館展示室 リモデリング工事により観光客の作業現場への出入りを禁止します。利用にご不便をおかけし申し訳ありません。期間：2016.4.1～2016.7.31 / 問合せ電話：独島博物館

(054-790-6591)」と書いてある。

횡단막은 「독도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관광객의 작업 현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간 : 2016.4.1~2016.7.31 / 문의전화 : 독도 박물관 (054-790-6591)」이라고 써 있다.



博物館のすぐ側に独島展望台ケーブルカーの乗車口があった。小高い山は망향봉望郷峰 317.3m であった。写真は右に下りケーブルカーが写っていて、中央の白い建物が独島博物館。



박물관의 곧 측에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의 승차구가 있었다. 작은 산은 망향봉 317.3 m 였다. 사진은 오른쪽으로 하행 케이블카가 비치고 있고, 중앙의 흰 건물이 독도 박물관.

山頂の展望台で、居合わせた観光客に独島はどっちの方向かと聞くと、あれ、と望遠鏡を指さした。望遠鏡が二つあって、その一つは独島専用らしく独島が見える方向に固定されていた。展望台で数人の観光客の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て、ちょっと民間交流し、またケーブルカーで下って道洞港へとぶらぶら歩いた。

산정의 전망대에서, 우연히 만난 관광객에게 독도는 어느 방향인가 하고 물으니, 저것, 이라고 망원경을 가리켰다. 망원경이 두 개 있고, 그 하나는 독도 전용인것 같게 독도가 보이는 방향으로 고정되고 있었다. 전망대에서 몇 사람의 관광객의 사진을 찍고, 조금 민간 교류도 하고, 또다시 케이블카로 내려와 도동항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どこでもそうだが、港には魚市場があった。小さいけれども釜山で言うとチャガルチのような場所だ。そこを見物しながら、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チョッカイを出してみた。断る人もいるが乗りのいい人もいる。ポーズも様になっている。すぐさま写真を印刷して渡すともう私は人気者である。こんな風に撮ってくれと指定する人も出てくる。これが面白くて写真が止められない。もう一つ、でかい三角形の巻き貝がいた。われわれが北九州若松の岩屋

で採るこの種の貝は大きくても 3cm 前後である。しかしここのは写真で分かるように、サザエもでかかったがそのサザエよりもでかい。私の握り拳よりも大きかった。



어디에서라도 그렇지만, 항구에는 어시장이 있었다. 작지만 부산으로 치자면 자갈치와 같은 장소다. 그곳을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응해주는 사람도 있다. 포즈도 근사하다. 곧 바로 사진을 인쇄해 건네주면 이제 나는 인기인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달라고 지정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것이 재미있어서 사진을 멈출 수 없다. 하나 더, 아주 큰 삼각형의 고둥이 있었다. 우리가 키타큐슈(北九州) 와카마쓰(若松)의 이와야(岩屋)에서 잡는 이런 종류의 조개는 커도 3cm 전후이다. 그러나 여기의 것은 사진으로 알 수 있듯이, 소라도 컸지만 그 소라보다 아주 크다. 나의 주먹보다 컸다.



夕食は港近くの食堂でビビンパ。これしか知らないのだ。あちこちでビビンパを食べてきたが、釜山の南浦洞で食べたビビンパが質的にも量的にも一番よかった。この食堂でも何枚か写真を撮り、民間交流。写真の人々は夫婦四組のグループだ。夫婦連れでトレッキングだろうか。私がもうすこし韓国語ができれば楽しいのだが。



저녁 식사는 항구 가까이의 식당에서 비빔밥. 이것 밖에 모른다. 여기저기에서 비빔밥을 먹어 왔지만, 부산의 남포동에서 먹은 비빔밥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제일 좋았다. 이

식당에서도 몇장이나 사진을 찍어, 민간 교류. 사진의 사람들은 부부 4쌍의 그룹이다. 부부 동반으로 트레킹일까. 내가 좀 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즐겁겠지만.

ぶらぶらとホテルに戻る途中、きらきらとネオンの輝く店があった。数人の男と女性一人がたむろしていた。年は50-60歳くらい。ここは何の店かと聞くとノレバンと女性が言う。

어슬렁어슬렁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반짝반짝 네온이 빛나는 가게가 있었다. 몇사람의 남자와 여성 한 명이 모여 있었다. 나이는 50-60세 정도. 여기는 무슨 가게인가 하고 물으니 노래방이라고 여성이 말한다.

9時少し前にホテルに戻りシャワーを浴び、鬱陵後の宿の手配。ここは4日にはチェックアウトしなければならない。帰りのビートルの予約は7日。6日夜のホテルはagodaでBusiness Hotel Busan Stationを予約している。4日と5日の夜が未予約だ。agodaを探しても空室がない。booking.comも空室がない。安いところはだ。高いところならあったかも知れない。楽天でやっと空室を見つけた。釜山インモテル。ここは以前から一度は泊ってみようと思っていたところだった。釜山駅周辺の最安ホテルの一つだ。安ホテルを検索すると必ず出てくる。

9시 조금 전에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울릉 후의 숙소의 준비. 여기는 4일에는 체크아웃 해야 한다. 귀가의 비틀의 예약은 7일. 6일밤의

호텔은 agoda 로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를 예약하고 있다. 4 일과 5 일의 밤이 미예약이다. agoda 를 찾아도 빈방이 없다. booking.com 도 빈방이 없다. 싼 곳이라서다. 비싼 곳이라면 있었을지도 모르다. 낙천에서 겨우 빈방을 찾아냈다. 부산 인 모텔. 여기는 이전부터 한 번은 묵어 보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부산역 주변의 최저렴 호텔의 하나다. 싼 호텔을 검색하면 반드시 나온다.

4日、5日泊まって6日にホテルを変えるのは面倒だったので4日から6日まで3泊を予約した。そして agoda で予約したビジネスホテルを解約しようと思い agoda の my page を開くと予約はないと出た。おかしい、手元には voucher は届いている。my page を何回か閉じたり開いたりしたが、やっぱり予約記録が出ない。一泊 4000 円くらいのダブルブッキングだ。お金がもったいないが放置した。

4일, 5일 묵고 6일에 호텔을 바꾸는 것은 귀찮았기 때문에 4일부터 6일까지 3박을 예약했다. 그리고 agoda 로 예약한 비즈니스용 호텔을 해약하려고 생각하고 agoda 의 my page 를 열자 예약은 없다고 나왔다. 이상하다, 수중에는 voucher 는 도착해 있다. my page 를 몇번인가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지만, 역시 예약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일박 4000 엔정도의 이중 예약이다. 돈이 아깝지만 그대로 두었다.

鬱陵島第二日目：6月3日(金) 울릉도 제2일째：6월 3일(금)

今日は13時からケイコさんに会う予定になっている。午前中は何をしようかと思っていたが、島一周の遊覧船があることを思い出した。フェリーターミナルに行って遊覧船の乗船券を買う場所を尋ねるとあっちに行って下れという。なるほどそっちに行くと下る階段があった。言葉が通じないから、聞く方も答える方もあっち、こっちと指さし言葉だ。それで、下に行ったがそれらしき建物がわからない。また同じところに戻ってどこかと改めて聞き直した。今度は職員が外に出てきて私を導き、あそこだと指さした。下における場所が手前過ぎたのだ。

今日は13시부터 케이코 씨를 만날 예정으로 되고 있다. 오전중은 무엇을 할까하고 생각했지만, 섬을 일주 하는 유람선이 있는 것을 생각해냈다. 페리 터미널에 가서 유람선의 승선권을 사는 장소를 물으니, 저쪽에 가서 내려거라고 말한다. 과연 그쪽에 가니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묻는 쪽도 대답하는 쪽도 이 쪽 저 손가락질이다. 그래서, 아래에 갔지만 그것 같은 건물을 알 수가 없다. 다시 같은 곳으로 되돌아와 어딘가 하고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직원이 밖에 나와서 나를 이끌어, 저기라고 가리켰다. 아래에 내리는 장소를 바로 앞에 지나쳤던 것이다.

島一周約2時間、料金 W25000。乗船券を購入するときパスポートの提示を求められた。ここはやっぱり国境の島なのだ。船で島外に出るには必ず身分を確認する。以下、遊覧船からの写真を少しばかり紹介する。

섬 일주 약 2 시간, 요금 W25000. 승선권을 구입할 때 패스पोर्ट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여기는 역시 국경의 섬이다. 배로 섬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다. 이하, 유람선으로부터의 사진을 조금만 소개한다.

道洞港、右側手前にフェリーの発着ターミナルがある。谷間の入り江を港にした道洞である。町は平地ではなく斜面上にある。遊覧船に乗ったのはいいが案内は全て韓国語なのでちんぷんかんぷんであった。



도동항, 우측 앞에 페리의 발착터미널이 있다. 골짜기의 후미를 향기로 한 도동이다. 마을은 평지는 아니고 경사면상에 있다. 유람선을 탄 것은 좋았지만 안내는 모두 한국어이므로



형설수설이었다.

カモメに餌をやるのはこの種の遊覧船の定番のようである。カモメも船とともに島を一周した。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유람선의 기본인 것 같다.

갈매기도 배와 함께 섬을 일주했다.

象岩。鬱陵島は火山島らしいがその痕跡が最も明瞭に観察できる岩石だ。向こうに見える尖った山は錐山。



코끼리바위. 울릉도는 화산도인것 같지만 그 흔적이 매우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암석이다. 저 편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산은 송곳봉.



錐山 송곳봉



道洞帰着 도동 귀착

島を一周して 11 時過ぎに道洞港に到着した。下船後、明日の浦項行きの乗船券を予約。乗船前の混雑に巻き込まれたいくなかったし、通路側の席を確保したかった。そこまではよかったが、「予約券」のようなものがなかった。明日は大丈夫かと心配だった。

섬을 일주 하고 11 시 지나 도동항에 도착했다. 하선 후 내일 포항 행 배표를 예약. 승선 전에 혼잡에 관여 들고 싶지도 않았고, 통로 쪽 좌석을 확보하고 싶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예약 권' 같은 것이 없었다. 내일은 괜찮을까 걱정이었다.

昼食。ここがいいと思って入った食堂が昨夜と同じところだった。がっかり。違うところへ行きたかった。まあ、その程度の記憶力なのだ。出て行くのも気が引けたので、そのまま入って、またビビンパを注文した。

점심.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 들어간 식당이 어젯밤과 같은 곳이었다. 실망. 다른 곳에 가고 싶었다. 뭐, 그 정도의 기억력이다. 나가는 것도 주눅이 들었으므로, 그대로 들어가, 또 비빔밥을 주문했다.

食事後、ケイコさんに会う 13 時までには少し時間があつた。フェリーターミナルの反対側（入り江の対岸）に行ってみた。そこには海の幸を食べさせる「牡蠣小屋」のような店が二軒あつた。



식사 후, 게이꼬 씨를 만나서
13 시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다.
페리 터미널의 반대측 (후미의
건너편) 에 가 보았다. 거기에는
해산물을 먹이는 「굴
오두막집」 과 같은 가게가 2 채
있었다.



牡蠣小屋からフェリーターミナルを
望む
굴 오두막집으로부터 페리
터미널을 바라본다

12時50分頃に日本式家屋の「鬱陵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に行った。昨日会った受付嬢がいた。「ケイコさん来てますか」と声をかけると「もう来てますよ」と返事。ケイコさんは細身の女性だった。

12시 50분 무렵에 일본식 가옥의 「울릉 역사 문화 체험 센터」에 갔다. 어제 만난 접수양이 있었다. 「게이꼬 씨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벌써 와 있어요」라고 대답. 게이꼬 씨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여성이었다.



ケイコさん、許さん撮影
게이꼬 씨, 허선생님 촬영

センターの応接室のようなところで昨日と同じように呼びかけ文を出し、読んでもらい協力をお願いした。ケイコさんは「いいことですね」と

言ってくれた。自分はここでは「自由写真家」を名乗っているが実は、と、まあ、自分の「正体」をさらけ出した。自分を隠しては信頼関係を築けない。そう思う。だって、自分だって、得体の知れない初対面の人から唐突もないことを頼まれると身を引くに決まっている。

센터의 응접실과 같은 곳에서 어제와 같이 협조문을 보내어, 읽어 주며 협력을 부탁했다. 게이코 씨는 「좋은 일이군요」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여기에서는 「자유 사진가」를 자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자신을 숨기고 있어서는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첫 대면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일을 부탁받으면 몸을 사리기 마련이다.

そして「文集 私の韓国、私の日本」を送ることにした。これは帰国後「西双版纳（シーサンパンナ）7日間とその前後」と合わせて4冊ずつ送った。ケイコさん1、許さん1、センター1、そして独島博物館の館長1、とケイコさんをお願いした。後日、許さんから「あなたの本を読んで涙した」というメールが届いた。この「文集」は500部印刷し私が100部日本に持ち帰り、残り400部を寄稿者を中心に主に釜山で配布した。文集を編集してよかったと改めて思った。

그리고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을 보내기로 했다. 이것은 귀국후 「西双版纳（시산판나）7일간과 그 전후」와 합해 4권씩 보냈다. 게이코씨 1, 허선생님 1, 센터 1, 그리고 독도 박물관의 이 관장 1, 이라고 게이코씨에게 부탁했다. 후 일, 허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의 책을 읽어 울었다」라고 하는 메일이 도착했다. 이 「문집」은 500부 인쇄해 내가 100부 일본에 가지고 돌아가고, 나머지 400부를 기고자를 중심으로 주로 부산에서 배포했다. 문집을 편집해서 좋았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ケイコさんとの話が終わったのは2時を過ぎていたと思う。センターを出てまたぶらりと道洞港へ行った。サンフラワー号が停泊していて、しばらくして出港した。浦項行きの出発は14時30分だったのでちょっと時間が合わない。墨湖行きだろうか。

케이꼬씨와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2시를 지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센터를 나와 또 훌쩍 도동항에 갔다. 썬 플라워호가 정박하고 있다가, 잠시 후 출항했다. 포항행의 출발은 14시 30분이었으므로 조금 시간이 맞지 않는다. 묵호행일까.

港の広場はフェリーが着いたときは人と車でごった返していた。夕方になるとそれぞれの宿に落ち着いたの
であろう、人気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



항구의 광장은 페리가 도착했을 때는 사람과 차로 붐비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각각의 숙소에 안정이 되었을 것이다, 인기척은 거의 없어졌다.

さて、この日はあまり面白そうな被写体は現れてこなかったので夕食に向かった。今日は肉が食べたいと思い、一軒の店に入った。一人ではダメだと断られた。あてもなく次を探してぶらぶら歩いていたら女性が客待ち顔で通りを眺めていた。肉料理の看板もあった。一人だがOKか、と尋ねるとOKという身振り。そこに入った。6時半過ぎくらいだったと思うがまだ客はいなかった。

그런데, 이 날은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은 피사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러 갔다.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한 가게에 들어갔다. 혼자서 안 된다고 거절 당했다. 정처 없이 다른 곳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자니 여성이 손님 기다리는 얼굴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기 요리의 간판도 있었다. 한 명이지만 OK 인가, 라고 물으니 OK 라고 하는 몸짓. 그곳에 들어갔다. 6 시 반 넘을 정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손님은 없었다.

注文したのは「오삼焼肉」。手前の空の皿はダイコンキムチ。韓国料理は野菜が多い。私はだいたい食べてしまうが、どこの食堂でも食べ残しが結構多い。満腹させるほど沢山出したという韓国文化らしいが、出し過ぎだ。茶碗を持って食べるのは乞食の食べ方と言われたことがある。まあ、これが文化の違いだ。その違いを良い悪いで言っても意味がない。この看板のところに女性が立って通りを眺めていた。



주문한 것은 「오삼 불고기」. 앞에 있는 빈 접시는 무우 김치.



한국요리는 야채가 많다. 나는 거의 다 먹어 버리지만, 다른 식당에서는 남기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 한국 문화인 것 같지만, 지나치게 나온다. 밥공기를 들고 먹는 거지의 먹는 방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뭐, 이것이 문화의 차이다. 그 차이를 좋다 나쁘다 말해도 의미가 없다. 오삼 불고기 이 간판이 있는 곳에 여성이 서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この日はこれで終わり。

이 날은 이것으로 끝.

鬱陵島第三日目：6月4日（土） 울릉도 셋째 날：6월 4일（토）

今日は11時から独島博物館の館長李承鎮さんとお茶。その前後は乗船までフリー。いつものように港へ行って被写体を探した。明らかに外国人労働者が働いていた。しばらく眺めて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頼んだ。

今日は11시부터 독도 박물관의 관장 이승진선 생님과 차. 그 전후는 승선까지 자유. 여느 때처럼 항구에 가서 피사체를 찾았다. 분명하게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한참 바라보다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右の写真の彼が言うにはチモールから来たらしく、韓国に来て4年、鬱陵島に来て2ヶ月という。

오른쪽의 사진의 그의 말해 의하면 치모르로부터 온듯, 한국에 와서 4년, 울릉도에 와서 2개월이라고 한다.



夜中に仕事をして港に戻ってきた船員たちの朝食が始まった。9時くらいである。NHKの「サラメシ（サラリーマンの昼飯）」ではないが、港の市場で皆で食べていた。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頼むと大きな声で断られた。何と



言われたかわからない。しかし、その内の一人は OK を出した。

外国人労働者を使っていた船長だ。

한밤중에 일을 하고 항구로 돌아온 선원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9시 정도이다. NHK의

「사라메시 (샐러디맨의 점심)」는 아니지만, 항구의 시장에서 모두가 먹고 있었다. 사진을 찍게 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자 큰 소리로 거절 당했다. 뭐라고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중의 한 명은 OK 라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선장이다.



港の広場の周辺には飲み物等を売る「屋台」がいくつかある。その内の一軒のマダム、気さくでひょうきんな女性であった。そして男性が二人、港を眺めていた。二人の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て、しばらくしてその内の一人が近づいてきた。



日本語が話せた。高判載さん、90歳。全羅南道の小学校に通ってい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懐かしそうに話した。話が終わるとバイクで颯爽とどこかに消えた。

항구의 광장의 주변에는 음료등을 파는 「포장마차」가 몇개인가 있다. 그 중의 한 집 마담은, 상냥하고 익살스러운 여성이었다. 그리고 남성이 두 명,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명의 사진을 찍고, 잠시 후 그 중의 한 명이 다가 왔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 고판재씨, 90세. 전라남도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일을 그리운 듯이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오토바이로 삼상과 어디엔가 사라졌다.

しばしば出かけた釜山でもそうであったが、戦前、戦中に日本人と関わりのあった韓国の人々は日本人に対して何かしらの懐かしさを感じているように思う。そのような人ばかりが私に接近してくるのかも知れないが、私の経験では日本との関わりを懐かしがる人ばかりだ。もちろん、これらの人々が日本を懐かしがっていても日本の帝国主義的支配を肯定している訳ではないと思う。私が知っている人で日本帝国主義を肯定した人が一人だけいた。

자주 나간 부산에서도 그랬지만, 전쟁 전, 전시중에 일본인과 관계가 있던 한국의 사람들은 일본인에 대해서 뭔가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만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지도 모르지만, 나의 경험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사람 뿐이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을 그리워하고 있어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긍정한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

11時までにはまだ時間がある。少し町を歩いた。やっぱり島は狭い。高低差があり、道いっぱいには車が走る。

11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조금 마을을 걸었다. 역시 섬은 좁다. 높낮이 차이가 있고, 길 가득 차가 달린다.



10時 50分頃にホテルに戻った。

ホテルの主人が先生に電話してくれた。もう近くに来ているという身振り。すぐに来た。先生は日本語ができる。喫茶店にでも行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ここで唯一かどうかわからないが喫茶店に入った。



10시 50분 무렵에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의 주인이 선생님에게 전화해주었다. 이미 근처에 와있다고 하는 몸짓. 곧바로 왔다. 선생님은 일본어를 할 수 있다. 찻집에라도 갑시다 라고 되어, 이곳에서 유일한지 모르지만 찻집에 들어갔다.

李先生は気さくな人だ。独島博物館の館長だからそれなりの堅物を想像していたが、そうではなかった。だって、自分と会うために時間を取ること自体がその現れだと思う。もう数十年前のことだが、大阪の吹田市にある国立民族学博物館に2年間留学していたという。それで日本語ができるし、日本人にフレンドリーなのだと思った。人類学博士。専門は「焼畑」。ずいぶんマイナーな分野だ。それで独島博物館館長。釜山出身だそうだ。

이 선생님은 상냥한 사람이다. 독도 박물관의 관장이니까 그 나름대로 강직한 사람으로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와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는 것 자체가 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수십 년전의 일이지만, 오사카의 스이타시(吹田市)에 있는 국립민족학 박물관에 2년간 유학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인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인류학 박사. 전문은 「화전」. 대단히 마이너 분야다. 그래서 독도 박물관 관장. 부산 출신이라고 한다.

浦項でどうして自分に声をかけてきたかも聞いた。先生は「偶然だ」と応えた。浦項で乗船券を購入する際、係員から、あの日本人がどうして鬱陵島に行くのか聞いてほしい、と依頼されたとのこと。私が乗船券を購入した後、たまたま日本語を話せる先生が発券窓口に来て、あの日本人だ、と係員から依頼されたらしい。日本人が鬱陵島に行くことに対して韓国側が神経をとがらしていることの現れだ。それはもちろん独島問題があるからだろう。

포항에서 어째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 왔는지도 물었다. 선생님은 「우연이다」라고 대답했다. 포항에서 승선권을 구입할 때, 관계자로부터, 그 일본인이 어째서 울릉도에 가는지 물어 보세요, 라고 부탁 받았다는 것. 내가 승선권을 구입한 후, 우연히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발권 창구에 와서, 그 일본인이다, 라고 관계자로부터 부탁 받은 것 같다. 일본인이 울릉도에 가는 것에 대해 한국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증거다. 그것은 물론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先生と独島の話はしなかった。独島の議論をするために鬱陵島に来たわけではないし、話をしても情報の少ない自分が負けるに決まっている。この種の問題は歴史的経過をしっかりと把握しておかないとまともな議論はできない。さもなければ、偏った情報で、ただ自分のものだと言い張るだけで、感情的な疲労感の残る言い争いとなる。いずれにしても、先生とお話しして感情的なものは感じなかった。

선생님과 독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독도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온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정보가 적은 내가 지게 마련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역사적 경과를 확실히 파악해 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는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우친 정보로, 단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만으로, 감정적인 피로감이 남는 언쟁이 된다. 어쨌든, 선생님과 이야기해 감정적인 것은 느끼지 않았다.



횡단막에는 「울릉도 향토나물 시식회 주관 : 울릉도 새마을 부녀회」 라고 있었다. 즉, 자신도 이 열에 줄서면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횡단막의 의미는 귀국후 사전을 찾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미



ともあれ、11時30分くらいに先生と別れて港に戻った。港は人と車でごった返していた。緑色のユニフォームを来た女性たちが何やら料理を作っていた。そしてそれを待つ列もあった。横断幕には「鬱陵島郷土ナムル試食会 主管：鬱陵島セマウル婦人会」とあった。ということは、自分もこの列に並べばただで昼飯が食えたわけだ。横断幕の意味は帰国後辞書を引いてわかったことだから、もう手遅れだ。

여하튼, 11시 30분정도 선생님과 헤어지고 항구로 돌아왔다. 항구는 사람과 차로 붐비고 있었다. 녹색의 유니폼을 온 여성들이 무엇인가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행렬도 있었다.

늦어버렸다.

船から下りたお客を町が吸い込んでゆく。

배로부터 나온 손님을 마을이 빨아들여 간다.

さあ、昼飯にしよう。道洞の港から坂道を登って入りやすい食堂を探した。ハングルが読めないから、食堂を探す基準は美味そうなものがあるかどうかというよりは、むしろ、店先に料理の写真を掲示しているとか、客が少ないとか、店の人から声を掛けられたとか、店の中が見えるとか、そんなものだ。それで客の少ない店があった。

자, 점심을 먹자. 도 동의 항구에서 비탈길을 올라 들어가기 쉬운 식당을 찾았다. 한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을 찾는 기준은 맛있을 것 같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포 앞에 요리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든가, 손님이 적다든가, 가게의 사람이 말을 걸어 왔는가 든가, 가게 안이 보인다든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손님이 적은 가게가 있었다.

入って、よく読めないが壁に貼られたメニュー見ていたら、女性従業員が、これはどうですかと言ったかどうか、話しかけてきた。よく分からなく、ちょっとやりとりしていたら横から「刺身どんぶり」と声が入った。その店の主人のようだ。회덮밥だった。日本語を聞いて安心して、中身は分からないけどそれを注文した。

들어가서, 잘 읽을 수 없지만 벽에 붙여진 메뉴 보고 있으니, 여성 종업원이, 이것은 어떻게습니까 라고 말했는지, 말을 건네 왔다. 잘 몰라서, 조금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자니 옆에서 「회 덮밥」이라는 일본어로 소리가 들렸다. 그 가게의 주인 같다. 회 덮밥 이었다. 일본어를 들어 안심하고,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을 주문했다.

日本の海鮮どんぶりと違って、ご飯と海鮮は別の器だ。多分ご飯をどんぶりに入れてぐるぐる混ぜてピビ



ンパのようにして食べるのかも知れない。自分は混ぜ混ぜしたくなかったのでご飯はご飯、海鮮は海鮮で混ぜずに食べた。魚の名前は分からないが、白身の刺身でおいしかった。

일본의 해산물 덮밥과 달리, 밥과 해산물은 다른 그릇이다. 아마 밥을 덮밥에 넣어 빙빙 섞어서 비빔밥처럼 해서 먹어도 모르다. 나는 섞어서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밥은 밥, 해산물을 해산물로 비비지 않고 먹었다. 물고기의 이름은 모르지만, 흰 살 생선회로 맛있었다.

食べ終わって、お金を払って、ご主人に向かって「タンシネ サジナル チゴド チョウスムニカ」と言うと、OKが出た。その時、横にいた客がハッ、ハッ、ハッと声を出して笑った。きっと私の韓国語の発音がおかしかったのだろう。ついでにその客の写真も撮った。帽子には「独島」とあった。やっぱりここは「独島」の最前線なのだ。

다 먹고, 돈을 지불하고, 주인을 향해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까」라고 말하자, OK가 나왔다. 그 때, 옆에 있던 손님이 큰소리로 웃었다. 틀림없이 나의 한국어의 발음이 이상했을 것이다. 하는 김에 그 손님의 사진도 찍었다. 모자에는 「독도」라는 글씨가 있었다. 역시 여기는 「독도」의 최전선이다.



店の主人が店の主人
「独島」の帽子をかぶった青年。
「독도」의 모자를 쓴 청년.



昼食後、預けていたリュックを取り
りにホテルに戻った。経営者夫妻の
写真を撮り、再び 10 数 kg の荷物を
担いでフェリーターミナルへ向かっ
た。リュックをターミナルの待合室
の椅子において、乗船までしばしの
間付近の写真をとった。フェリーに
乗るとまたあの開かずの間だ。



점심 식사 후, 맡기고 있던
배낭을 찾으려고 호텔로 돌아왔다.
경영자 부부의 사진을 찍고, 다시
10 수 kg 의 짐을 메고 페리



터미널로 향했다. 배낭을 터미널의
대합실 의자에 놓고, 승선까지 잠깐
사이 부근이 사진을 찍었다. 페리를
타면 또 그 특별경우만 여는
방이다.

今回滞在したのは道洞だけだったが、反日感情に触れることもなく平和で
あった。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嫌韓的な鬱陵島訪問記があったが、思うに、
嫌韓感情と反日感情は作用と反作用の関係ではないか。嫌韓感情の強い人は
その人が感じる反日感情もきっと強いことだろう。逆も同じだろうと思う。

이번 체재한 것은 도동 뿐이었지만, 반일 감정에 접할 것도 없고
평화로웠다. 인터넷상에는 혐한적인 울릉도 방문기가 있었지만, 생각컨대,
혐한감정과 반일 감정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아닌가. 혐한감정의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느끼는 반일 감정도 반드시 강하겠지. 반대도 마찬가지로 일거라고 생각한다.

フェリーの中では何やら「喧嘩」のような女性の大声。まだ出港前である。座席を巡るトラブルのようだった。座席にはもちろん番号が打ってあるが、座ると前の席の番号が目の前にある。乗船券の番号と目の前に見える番号が同じであれば、それは一つ後ろの席に座っていることになる。そんなトラブル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船員が来て何か言っていた。

페리 안에서는 무엇인가 「싸움」 과 같은 여성의 큰 소리. 아직 출항전이다. 좌석을 둘러싼 트러블 같았다. 좌석에는 물론 번호가 붙어 있지만, 앉으면 앞 자리의 번호가 바로 앞에 있다. 승선권의 번호와 눈앞에 보이는 번호가 같으면, 그것은 하나 뒤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 그런 트러블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한다. 선원이 와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다.

もう一つ、出港後、通路に座り込んで花札をやっていたグループがあった。これも女性。脇にお金があったから掛け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中国ではしばしばこのような光景を見たが韓国では見たことがなかった。賭博は許されているのかしら。若い人はスマホをいじっている人が多かった。窓のない「一般席」の我々は3時間と少しの時間をもてあます。

하나 더, 출항 후, 통로에 눌러 앉아 화투를 치고 있던 그룹이 있었다. 이것도 여성. 거드랑이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다. 중국에서는 자주 이러한 광경을 보았지만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도박은 허락되고 있는 것일까. 젊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창이 없는 「일반석」 의 우리는 3 시간과 조금의 시간이 남아 주체 못하다.

浦項には6時頃到着した。フェリーを下りると(白)タクと思うが、テグ、テグ、と言うように声を張り上げていた。乗り合いタクシーの呼び込みだ。この種のタクシーは安くならないことがある。料金が日本のように割り勘にならないのだ。運転手だけが効率的に儲ける。だから呼び込みをやっているのだと思う。私はターミナルに客を送ってきた一般タクシーをつかまえてバスターミナルまで行った。W7400。

포항에는 6 시경 도착했다. 페리에서 내리자 (흰색)택시라고 생각하지만, 대구, 대구, 라고 말하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합승택시의 호객이다. 이런 종류의 택시는 싸게 안 되는 것이 있다. 요금이 일본과 같이 와리짱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운전기사만이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터미널에 손님을 배웅하고 온 일반 택시를 잡아 버스 터미널까지 갔다. W7400.

浦項發 6時 37分。釜山の老圃についたのは8時。約1時間 20分のバス移動。バスに乗るとき「プサン?」と運転手に聞いたが運転手は見向きもせず黙ってスマホで将棋ゲームをしていた。私は一番前の席に座ったが、他の韓国人の客が私と同様なことを聞いてもやはり返事をせず、出発直前まで運転席で将棋をしていた。

포항발 6시 37분. 부산의 노포에 도착 한것은 8시. 약 1시간 20분의 버스 이동. 버스를 탈 때 「부산?」 이라고 운전기사에 물었지만 운전기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다물고 스마트폰으로 장기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제일 앞 자리에 앉았지만, 다른 한국인 손님이 나와 같은 말을 물어도 역시 대답을 하지 않고, 출발 직전까지 운전석에서 장기게임을 하고 있었다.

釜山駅近くの釜山インモテルにチェックインしたのは夜の9時頃。部屋はまあまあだったがバスタブがなくシャワーだけだった。寒くはなかったのでまあいいとした。

부산역 가까이의 부산 인 모텔에 체크인 한 것은 밤 9 시경. 방은 별로였지만 욕조가 없고 샤워 뿐이었다. 춥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했다.

夕食のために外に出た。モテルの近くに「浦項料理」と書いてあったと思うが、一軒の食堂があった。特に行く当てはなかったのでそこに入った。そしたらまた「刺身どんぶり」のメニューがあったのでそれを注文した。ここのは鬱陵島のに比べて甘かった。この店は伝票にも値段が書いてあって明朗会計だった。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다. 모텔의 근처에 「포항 요리」라고 써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채의 식당이 있었다.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또 「생선회 덮밥」의 메뉴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주문했다. 여기의 것은 울릉도의 것에 비해 달았다. 이 가게는 전표에도 가격이 써 있어 명랑 회계였다.



釜山の刺身丼 부산의 회 덮밥

翫 6月5日(日) 6日(月) 7日(火) は凡一の平和市場に行ったり知人と会って過ごした。7日の午後帰国した。

다음 6월 5일(일) 6일(월) 7일(화)는 범일의 평화 시장에 가기도 하고 지인도 만나며 보냈다. 7일의 오후 귀국했다.

あとがき 꼬리말

今回の旅の目的は、まずは鬱陵島に私の活動を理解してくれる支持者を作ることであった。短い旅だったが、鬱陵島訪問の最低限の目的は達したと思う。

이번 여행의 목적은, 우선은 울릉도에 나의 활동을 이해해 주는 지지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울릉도 방문의 최저한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それにしても、韓国語ができない私が誰一人知人のいない鬱陵島に一人で出かけ、まさに「怖いもの知らず」＝「無謀」でもあった。予め私の思いを知らせていた朴清九さんと金仁熙さんは、きっと、天野が突拍子もないことを始めたと思ったに違いない。さらに、李館長、許マネージャーとその娘さん、そしてケイコさんも変な日本人が来たと思ったことだろう。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어를 할 수 없는 내가, 누구하나 아는 사람의 없는 울릉도에 혼자서 나가서. 정말로 「무서운 것 알지 못하고」＝「무모」하기도 했다. 미리 나의 생각을 알리고 있었던 박청구 선생님과 김인희 선생님은, 반드시, 아마노가 엉뚱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관장, 허 매니저와 그 따님, 그리고 게이꼬씨도 이상한 일본인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日本と韓国で喧嘩しても我々一般人には何の意味もない。日韓の友好を願ってということに免じて、ご迷惑をおかけした皆さん、平にご容赦を。

일본과 한국에서 싸움을 해도 우리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일 우호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관대히 보아, 폐를 끼친 여러분, 제발 용서를.

獨島博物館と日本式家屋は初めから行く予定にしていた。そして、知り合いがいらないのだから、そこで私を受け付けてくれた人に私の思いをぶつけてみようかと計画していた。その後の展開は、上述したとおりである。

독도 박물관과 일본식 가옥은 처음부터 같 예정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를 받아들여 준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부딪쳐 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후의 전개는, 상상했던 대로이다.

ケイコさんは「神の引き合わせ」だったか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神」以外は予想だにできなかった皆さんとの巡り合わせであった。ケイコさんとは二回目の渡島計画について調整中である。

케이꼬씨는 「신의 인도」였는지 그러한 것을 말했다. 「신」 이외는 결코 예상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와의 만남이었다. 케이꼬씨와는 2 회제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조정중이다.

さて、日本では、今回の参議院選挙で改憲勢力が過半数を獲得した。この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の教訓を反故にして、日本が再び軍拡路線を歩み始めることを意味する。軍事力では真の平和は確保できない。軍事力は負の連鎖を強化するだけだ。ちょっと付け足しておきたい。日本の嫌韓派には軍拡路線支持派が多いという印象を持っている。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제 2 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휴지 조각하여 일본이 다시 군비 확산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보장 할 수 없다. 군사력은 부의 연쇄를 강화하는 뿐이다. 조금 첨가 해두고 싶다. 일본의 험한 파에게는 군비 노선지시 과가 많다는 인상을 가지고있다.

戦争で犠牲になるのは一般市民であり、逆に利益を上げるのが武器商人である。今の世界情勢が如実にそのことを示している。私は軍事力に頼らない平和を模索したい。文集を作る活動もその一つと思っている。私の民間外交がその一助となれば望外の喜びである。

전쟁에서 희생되는 것은 일반 시민이며, 반대로 이익을 올리는 것이 무기 상인이다. 지금의 세계 정세가 여실히 그 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모색하고 싶다. 문집을 만드는 활동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민간 외교가 하나의 보탬이 된다면 기대 이상의 기쁨이다.

2016年7月11日

天野松男



地図 지도

http://www.sekaichizu.jp/atlas/eastern_asia/country/img/map800p/a_10_japan.gif

2016 年 6 月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추억담을 보내주세요
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思い出をお寄せください

자유 사진가 아마노 마쓰오
自由写真家 天野松男

울릉도와 일본은 옛날부터 주로 어업을 통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0 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패전에 의해 한국이 해방된 후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鬱陵島と日本は昔から主に漁業を通じて交流があったと聞いています。しかし 1910 年に日本が韓国を併合したために、その関係は敵対的なものになったと思います。日本の敗戦により韓国が解放された後も韓国と日本の間には種々の問題が残ったままとなっています。

그러나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는 별도로, 한사람의 민간인 입장에서, 양 국민의 우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시도로, 울릉도의 옛 일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전후에 태어난 일본인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의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울릉도민)과 일본인 사이에 다양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교류의 내용을 알아서, 서로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しかし私は、韓国と日本との政治的な対立とは別に、ひとりの民間人の立場で両国民の友好的関係を築くことを模索しています。その一つの試みとして鬱陵島におけるかつての日本人の「振る舞い」を調べてみようと考えました。私のように戦後生まれの日本人は戦前、戦中の韓国のことをほとんど知りません。鬱陵島のことにはなおさら知りません。いいことも悪いことも含めて韓国の人々（鬱陵島民）と日本人との間でいろいろな交流があったこと

と思います。その交流の内容を知り、お互いの理解に役立てたいと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억의 문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일본인에 대한 추억담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억담은 다음 페이지의 양식에 따라 보내주세요. 기고 해 주신 분들에게는 문집 한 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そこで、皆さんの思い出の文集を作ろうと考えました。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日本人の思い出を寄せていただきたくお願いいたします。思い出は次ページの様式に沿ってお寄せください。寄稿していただいた方には一冊無料で進呈いたします。

출판 부수 : 200 부 (한일 양국어 병기, 아마노마쓰오의 자비 출판)
원고의 수집, 통역, 번역, PC 입력을 해주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出版部数 : 200 部 (日韓两国語併記、天野松男の自費出版) 原稿の収集、通訳、翻訳、パソコン入力をしていただけるボランティアを募集しています。ご協力お願いいたします。

연락처連絡先 : 天野松男 Matsuo Amano TEL/FAX +81-93-701-1245
amanomatsuo@gmail.com
〒808-0103 福岡県北九州市若松区二島4-3-24
Postal Code 808-0103 Futajima 4-3-24, Wakamatsu-ku, Kitakyushu-shi,
Fukuoka-ken, JAPAN

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鬱陵島 ～ 鬱陵島二泊三日の記録 ～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울릉도 ～ 울릉도 2박 3일의 기록 ～

天野松男 아마노 마쓰오